

‘사우나의 나라’ 핀란드

인구 550만 명에 사우나 시설이 300만 개

자이리틀 껌, 만화 캐릭터 무민, 산타클로스가 사는 로바니에미, 디자이너 브랜드 마리메꼬와 이바나 헬싱키, 노키아…. 핀란드 하면 떠오르는 것들이다. 하지만 핀란드를 돌아본 후 핀란드가 만든 최고의 상품은 사우나라는 것을 알게 됐다. 열기로 이글거리는 몸을 얼음장 같은 호수에서 식히는 핀란드 사우나는 그야말로 “휘바~휘바!(좋아 좋아)”였다. 올해 세계에서 가장 행복한 나라로 꼽힌 핀란드에서 그들의 행복하고 여유로워 보이는 일상을 잠시 경험했다.

글·사진 임동근 기자



뜨겁게 달군 몸 얼음장 호수에 던질 때의 짜릿함

정신이 아득할 정도로 몸이 달궈지더니 온몸에서 땀이 샘솟아 흐른다. 도저히 견딜 수 없는 순간 열기로 가득한 공간을 빠져나와 서둘러 호수로 향했다. 얼음장같이 차가운 호수에 뛰어들자 이내 열기로 몽롱했던 정신이 되돌아왔다.



사우나는 핀란드를 대표하는 상품이다. 인구 550만 명의 나라에 사우나 시설이 300만 개나 있다. 가정에는 물론 동네마다 사우나가 하나씩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렇게 사우나가 많은 것은 가나

긴 겨울과 혹독한 추위 때문이다. 핀란드인에게 사우나는 혹한을 이겨내는 버팀목이자 생존 수단이라고 할 수 있다.

수도 헬싱키에서 북쪽으로 차로 2시간 거리에는 '세계 사우나의 수도'로 불리는 곳이 있다. 남쪽과 북쪽에 거대한 호수를 끼고 있는 탐페레(Tampere)다. 도시 곳곳에는 공중 사우나가 34개나 있어 핀란드 사우나의 참모습을 경험할 수 있다. 1906년 개장한 핀란드에서 가장 오래된 라야포르티(Rajaportti) 사우나도 이곳에 있다.

섭씨 130도 넘어선 온도계 바늘

핀란드 사우나를 체험하기 위해 탐페레 도심에서 차로 10분 거리에 있는 라우하니에미(Rauhaniemi) 사우나를 찾았다. 1929년 개장한 유서 깊은 곳으로 밝은 노란색 단층 건물이 잔잔하고 드넓은 나시 호수(Nasijarvi)를 배경으로 들어서 이국적인 분위기를 전한다. 건물 앞 양자바른 곳에서는 사람들이 의자에 나란히 앉아 일광욕을 즐기고 호수에서는 물놀이를 한다.

수영복 차림에 두꺼운 사우나용 털모자를 쓰고 발등이 막힌 샌들을 신었다. 이곳은 남녀 공용시설이어서 수영복을 입어야 한다. 모자와 샌들은 열기로부터 신체를 보호하는 도구다. 물론 사우나에 적응된 핀란드인은 수영복만 입기도 한다. 수분 보충을 위해 생수병도 한 통 챙겼다.



1



2



1 라우하니에미 사우나 주변의 나시 호수 풍경 2 사우나 후 양자바른 곳에서 쉬고 있는 사람들 3, 4 사우나 후 즐기는 구운 소시지 5 핀란드 맥주와 음료

이곳 사우나는 20여 명이 동시 이용할 수 있는 좁은 공간과 이보다 2배쯤 큰 공간으로 구분돼 있다. 사람들로 빼곡한 것은 둘 다 마찬가지이다. 나무로 만든 사각 깔판을 쟁겨 들고 좁은 공간으로 들어서자 후끈한 기운이 얼굴을 엄습한다. 내부는 ㄷ 자 모양 3층 구조로 단을 만들어 놓았는데 가장 열기가 덜한 맨 아래에 자리를 잡았다. 뜨겁게 달궈진 돌에 물을 부으면 증기가 발생하기 때문에 사우나는 맨 위가 가장 뜨겁다. 2층을 거쳐 3층으로 자리를 옮기자 열기가 확실히 달라졌다. 습한 열기는 얼굴을 이글거리게 하더니 이내 몸 여기저기에 송골송골 땀을 맺히게 한다. 돌에 물을 부을 때마다 열기가 더해지더니 머리마저 따끔거린다. 이제 온몸은 땀으로 범벅이 되고 땀이 비처럼 흐른다. 벽에 매달린 온도계의 바늘은 섭씨 130도를 넘어서고 있었다.

더는 참지 못하고 사우나를 빠져나와 호수로 중증걸음을 쳤다. 그러나 호수에 발을 디딘 순간 비명이 새어 나왔다. 물은 얼음장같이 차가웠다. 오돌오돌 떨며 버텼지만, 물속에선 채 1분도 있을 수 없었다. 핀란드인들은 열대 휴양지라도 되는 듯 차가운 호수에 몸을 담그고 여유롭게 수영을 하고 다이빙을 즐겼다.



7 툴린 사우나 간판 8 100년 된 통나무로 지었다는 툴린 사우나 내부
9 툴린 사우나가 운영하는 호텔 객실
10 사우나 용품 11 툴린 사우나의 탈의실



심기일전하고 두 번째는 큰 공간으로 향했다. 내부에는 서로 마주 볼 수 있는 3층 구조의 단이 설치돼 있다. 이곳도 온도계는 섭씨 130도를 넘나들고 있었다. 하지만 공간이 넓어서인지 열기에 적응이 됐는지 한결 견디기 쉬웠다. 사우나를 찾은 동양인이 신기했는지 현지인 할아버지가 말을 건네기도 한다. 뜨거운 사우나와 차가운 호수를 드나들기를 수차례. 어느덧 피부는 탱글탱글 생기가 넘치고 기분 좋은 나른함과 행복감이 전신에 퍼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라우하니에미 사우나를 안내한 하이디 사보라이넨 씨는 "사우나는 핀란드인에게 삶의 중요한 일부로 여겨진다"며 "핀란드에서는 사우나를 기본적으로 세 차례 하는데 항상 차가운 호수에서 끝맺어야 건강에 좋다"고 설명했다.

핀란드인들은 사우나를 할 때 간식으로 흔히 소시지를 구워 먹는다. 집에서 챙겨오기도 하지만 매점소에서 소시지를 구매해 그릴에 구운 후 머스타드 소스를 곁들여 먹을 수도 있다. 사우나로 땀을 흘렸 땀 뒤라 그런지 구운 소시지는 그야말로 꿀맛이었다.

라우하니에미 사우나는 평일 오후 3~8시, 주말 오후 1~8시에 이용할 수 있으며, 입장료는 7유로부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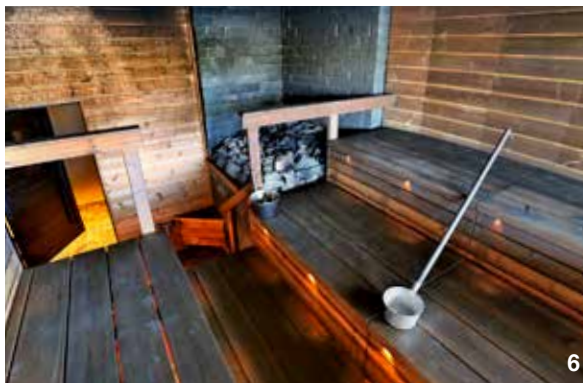
사우나와 레스토랑의 결합

탐페레의 중심인 케스쿠스토리(Keskustori)에서 남쪽으로 두 블록 떨어진 라우콘토리(Laukontori) 마켓광장의 강가에는 사우나와 가스트로팝(gastropub)을 결합한 사우나 레스토랑 '쿠마'(Kuuma)가 있다. 가스트로팝은 요리를 맛보며 음료나 술을 즐길 수 있는 곳을 말한다. 사우나 공간은 두 곳이 있는데 하나는 뜨거운 돌, 다른 하나는 달궂진 나무에 물을 붓는 방식이다. 사우나의 작은 창밖으로는 아름다운 탐페레 항구와 강의 풍경이 펼쳐진다. 사우나 공간에서 곧바로 나무 데크와 펍이 이어지고 데크에는 휴식을 위한 선베드가 놓여 있다. 강에 뛰어 들어 데워진 몸을 식힐 수도 있다.

통유리를 통해 바깥 풍경이 환하게 내다보이는 1층 레스토랑에서는 핀란드의 유명 셰프가 선보이는 감자요리, 생선구이, 스테이크 등 핀란드식 요리를 맛볼 수 있다. 핀란드 로컬 맥주와 다양한 와인도 갖추고 있다.

쿠마는 월~토요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11시, 일요일 정오부터 오후 8시까지 이용할 수 있다. 입장료는 10유로부터.

탐페레 기차역 동쪽으로 600m 지점에는 최근 문을 연 또 다른 분위기의 툴린(Tullin) 사우나가 있다. 100년 된 통나무로 지은 사우나를 이용한 후 자동차가 다니는 도로에 접한 휴게공간에서 휴식을 취할 수 있다. 각종 신선한 야채와 허브, 연어, 빵 등으로 구성된 건강식단을 즐길 수 있다. 툴린 사우나는 배낭여행객을 위한 저렴한 호스텔과 작지만 필요한 시설을 두루 갖춘 호텔도 운영하고 있다.





Tampere 탐페레

관광명소로 변신한 공업도시

탐페레는 원래 쇠락하는 공업도시였다. 그러나 옛 공장용지에 박물관, 레스토랑, 상점 등이 들어서면서 관광명소로 재탄생했다. 핀란드 유일의 무민(Moomin) 캐릭터 박물관과 아름다운 프레스크화로 장식된 대성당도 드넓은 호수 경관을 자랑하는 탐페레로 관광객을 끌어들이는 동력이 됐다.



1뤼니키 전망대 2 뤼니키 전망대에서 바라본 풍경 3 뤼니키 전망대의 명물 도넛

핀란드는 호수의 나라다. 호수가 전국에 18만여 개나 있다. 핀란드를 지칭하는 핀란드어 '수오미'(Suomi)는 '호수의 나라'란 뜻이다. 탐페레는 나시, 피하(Pyhäjärvi) 등 2개의 호수 사이에 자리 잡고 있다. 두 호수는 탐페레를 전국 최고의 사우나 휴양지이자 아름다운 호반 도시로 떠받치고 있다.

북유럽서 가장 높은 내신네올라 전망대

이곳 호수의 풍광을 제대로 감상하기 위해서는 내신네올라(Nasinneula)와 뤼니키(Pyynikki) 전망대로 가야 한다. 북유럽에서 가장 높은 내신네올라 전망대는 높이 168m의 건축물로 나시 호수와 도심을 감상할 수 있다. 전망대 아래층 회전 레스토랑에서는 식사하며 주변 풍광을 즐길 수 있다.

좀 더 운치가 있는 곳은 도심 서쪽에 있는 뤼니키 전망대. 늘씬한 가문비나무가 숲을 이룬 공원 중앙에 높이 25m로 솟은 원통형 전망대에 오르면 남쪽으로 피하 호수와 그 너머로 펼쳐지는 평온한 전원 풍경을 한 눈에 담을 수 있다. 전망대 1층 카페에서는 탐페레의 명물인 도넛을 판매한다. 커피나 차와 함께 즐기는 도넛의 맛이 무척 달콤하다.

도심 서쪽 언덕에 있는 피스팔라(Pispala) 마을도 전망 명소다. 드넓은 호수를 배경으로 빨간색이나 갈색 지붕을 얹은 목조 주택이 아트막한 언덕을 따라 들어서 이국적인 분위기를 선사한다. 탐페레에서 가장 아름다운 곳으로 꼽히는데, 주말이면 많은 시민이 브런치를 즐기기에 찾아든다.





1 탈리피하 마구간 부지의 기념품점
2, 3 문화·상업지구로 변모한 탐펠라 지구
4 탐메르코스키 강 양쪽으로 문화시설로 탈바꿈한 옛 공장건물이 보인다.



관광명소로 탈바꿈한 공장지대

북쪽 나시 호수의 물은 탐페레 도심을 관통하는 탐메르코스키(Tammerkoski) 강을 통해 남쪽의 피하 호수로 흘러든다. 나시 호수의 수면이 피하 호수보다 높기 때문이다. 19세기에는 이런 수면 낙차를 이용한 수력발전으로 섬유, 항공, 철도, 제지 등의 공업이 발달했다고 한다. 탐메르코스키 강을 건널 때나 강변을 따라 걸다 보면 당시 지어진 붉은 벽돌 건물들과 하늘로 높이 솟은 굴뚝들이 눈길을 끈다. 하지만 산업화의 상징이던 공장건물들은 더는 가동하지 않는다. 대신 각종 문화시설과 박물관, 레스토랑, 펍이 들어선 관광명소로 변모했다. 탐페레 시내는 이렇듯 도시의 과거와 현재를 엿볼 수 있는 지붕 없는 박물관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중 가장 유명한 곳은 강 서쪽에 자리한 핀레이슨(Finlayson) 공장단지. 1900년대 북유럽 최대의 섬유회사 중 하나였던 핀레이슨은 이곳에 공장, 사택, 사립학교, 병원, 도서관, 교회 등을 갖춘 단지를 형성했다. 현재 이곳은 자유박물관, 증기기관박물관, 스파이박물관, 영화관, 레스토랑, 카페, 펍 등이 입점한 복합 단지로 변신해 있다. 핀레이슨 공장단지 맞은편의 옛 공장지대인 탐펠라(Tampella) 지구도 옛 중장비·섬유 공장이 문화·상업지구로 변모한 곳이다. 바프리카(Vapriikki) 박물관센터에는 핀란드 게임박물관, 핀란드 하키 명예의 전당, 미디어 박물관, 광물 박물관, 자연사 박물관, 우편박물관 등이 들어서 있다. 핀레이슨 공장단지 북쪽에는 영주의 마구간 건물을 기념품점과 카페로 변모시킨 탈리피하(Tallipaha) 마구간 부지가 있다.



부티크숍에서는 각종 장신구와 그림, 촛대, 벽걸이 장식품, 컵 등을 판매한다. 초콜릿 가게에서는 달콤한 핀란드 초콜릿과 과자 등을 살 수 있다. 인근에는 현재 식당이 들어선 핀레이슨 궁전이 있다.

5

일상 펼쳐지는 탐페레 마켓 홀

탐페레 시민의 일상을 엿보고 싶다면 북유럽 최대의 실내 재래시장인 탐페레 마켓 홀(Kauppahalli)을 찾으면 된다. 1901년 영업을 시작한 유서 깊은 시장으로 탐페레에서 생산된 다양하고 신선한 식재료와 먹거리가 가득하다. 실내에 있어 날씨가 좋지 않아도 핀란드인의 일상을 엿볼 수 있다. 시장에 들어서면 1917년부터 고기를 팔아온 정육점, 1940년에 문을 연 꽃집, 70년 역사의 육가공 식품점이 시장의 오랜 역사를 말해준다. 다양한 버섯과 베리류, 소시지, 생선, 빵, 과일 등 우리와 다른 다양한 식재료와 먹거리를 하나하나 둘러보다 보면 시간 가는 줄 모른다. 운이 좋으면 상인들이 건네는 맛있는 빵이나 소시지 조각, 싱싱한 연어를 시식할 수도 있다. 빛깔은 새까맣지만 고소한 맛이 일품인 핀란드 전통 순대도 볼 수 있다. 시장 한쪽에는 다양한 음식을 파는 식당과 카페가 마련돼 있다. 탐페레 시민들이 장을 본 후 가족, 친구와 삼삼오오 모여 앉아 식사하며 대화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6



5, 7 탐펠라 지구
6 북유럽 최대의 실내 재래시장인 탐페레 마켓 홀
8 옛 공장 부지

7

8



1



2

이색 프레스코화가 있는 대성당

탐페레에는 핀란드에서 가장 아름다운 교회로 손꼽히는 탐페레 대성당이 있다. 1907년 건축가 라르스 손크(Lars Sonck)가 지은 루터파 교회로 화강석을 쌓아 올리고 첨탑을 높이 세운 북유럽풍 건축물이다.

이 성당은 특히 내부에 프레스코화가 아름다운 것으로 유명하다. 건축 당시 30대의 청년 예술가였던 휴고 심베리(Hugo Simberg)와 마그누스 엔켈(Magnus Enckell)은 교회의 천장과 벽에 일반 성당이나 교회에서 볼 수 없는 그림을 그려 넣었다.

내부로 들어서면 돔 천장 중앙에 사과를 물고 있는 뱀을 천사의 날개가 둘러싸고 있는 그림이 눈길을 끈다. 12사도를 상징하는 별겨벗은 소년의 그림과 인류의 부활을 상징하는 '부활'이란 제목의 그림도 볼 수 있다. 특히 '죽음의 정원', '상처 입은 천사'란 제목의 그림은 방문객을 생각에 잠기게 한다. 알록달록한 빛깔의 그림이 그려진 스테인드글라스도 교회 내부를 아름답게 장식한다.

안야 하카라이넨 관광가이드는 "핀란드인의 70%가 루터교 신자이지만 크리스마스 때를 제외하면 일요일 미사에 참석하는 사람이 별로 없고, 대신 성당에서는 다양한 음악콘서트가 자주 열린다"고 설명했다.



3

- 1 핀란드에서 가장 아름다운 교회로 손꼽히는 탐페레 대성당
- 2 프레스코화가 가득한 대성당 내부
- 3 '상처 입은 천사' 그림
- 4 12사도를 상징하는 소년 그림



4

세계 유일의 무민 박물관

무민(Moomin)은 핀란드 작가 토베 안손(Tove Jansson, 1914~2001)이 만든 핀란드를 대표하는 캐릭터이다. 50개국 이상에서 TV 애니메이션, 영화로 소개되며 인기를 끌었다. 핀란드에서는 지금도 아침마다 TV에서 무민 애니메이션을 방송하고 어디서나 무민을 그려 넣은 옷과 가방, 컵, 기념품 등을 볼 수 있다. 동글동글하고 귀여운 무민은 우리나라에서도 각종 캐릭터 상품과 전시회를 통해 소개되고 있다.

탐페레에는 세계 유일의 무민 박물관이 있다. 안손이 그린 원화를 비롯해 무민 관련 전시물 2천여 점이 전시돼 있다. 초기작과 안손의 일대기를 엿볼 수 있고 소설 속 상황을 재현한 미니 어처, 높이 2.5m로 정교하게 제작한 무민 하우스 등 볼거리가 가득하다. 첫 번째 작품인 '무민 가족과 대홍수'부터 '11월의 무민계곡'에 이르기까지 작품마다 가장 중요한 사건을 미니어처로 만들어 이해를 돕고 있다. 박물관에서는 방문객이 무민에 등장하는 캐릭터를 직접 종이로 제작해 그림자 인형극을 해볼 수도 있다.

박물관 옆으로는 초록빛 잔디밭 가운데 아름다운 연못을 품고 있는 공원이 있다. 연못가 데크나 잔디밭, 벤치에 앉아 아름다운 풍경과 핀란드인의 여유로운 일상을 보며 휴식하기 좋다.



5



- 5 무민박물관 레스토랑
- 6, 7 무민박물관 내부



6



7



Helsinki
헬싱키

일상의 삶 엿보는 도보여행 명소

헬싱키는 도보관광지로 제격이다. 도시가 크지 않고 공기가 깨끗하며 길모퉁이를 돌 때마다 새로운 풍경이 흥미를 자극하기 때문이다.

헬싱키의 랜드마크는 원로원광장과 헬싱키 대성당이다. 1640년대 광장에는 시청과 묘지가 있는 교회가 있었다고 한다. 실제 광장 아래에서는 무덤 130여 개가 발견되기도 했다. 현재 광장은 다양한 행사가 진행되거나 시민들이 만남의 장소로 이용한다. 핀란드 최대 축제인 '헬싱키 페스티벌'의 주요 무대도 바로 이곳이다. 광장 중앙에는 1894년 세워진 알렉산더 2세 러시아 대제의 동상이 서 있다. 침략국 지도자의 동상이 이곳에 있는 것은 알렉산더 2세가 핀란드인으로 원로원을 구성하도록 하고 자치권을 증대시켰기 때문이라고 한다.

광장 북쪽 계단 위에는 크림색 외관에 초록색 둥근 지붕이 덮인 헬싱키 대성당이 위용을 뽐낸다. 러시아 지배 때인 1852년 건축됐는데 당시에는 '성 니콜라스 교회'라고 불렸다. 이곳은 핀란드 루터파 교회의 총본산이다.



광장 주변으로는 코린트식 기둥이 인상적인 정부청사, 이오니아식 기둥으로 장식된 헬싱키 대학교 본관 등 18세기 이후 건축된 건축물들이 들어서 있어 고건축 여행을 즐기기에 좋다. 광장 남쪽에는 패션 의류 상점과 카페가 자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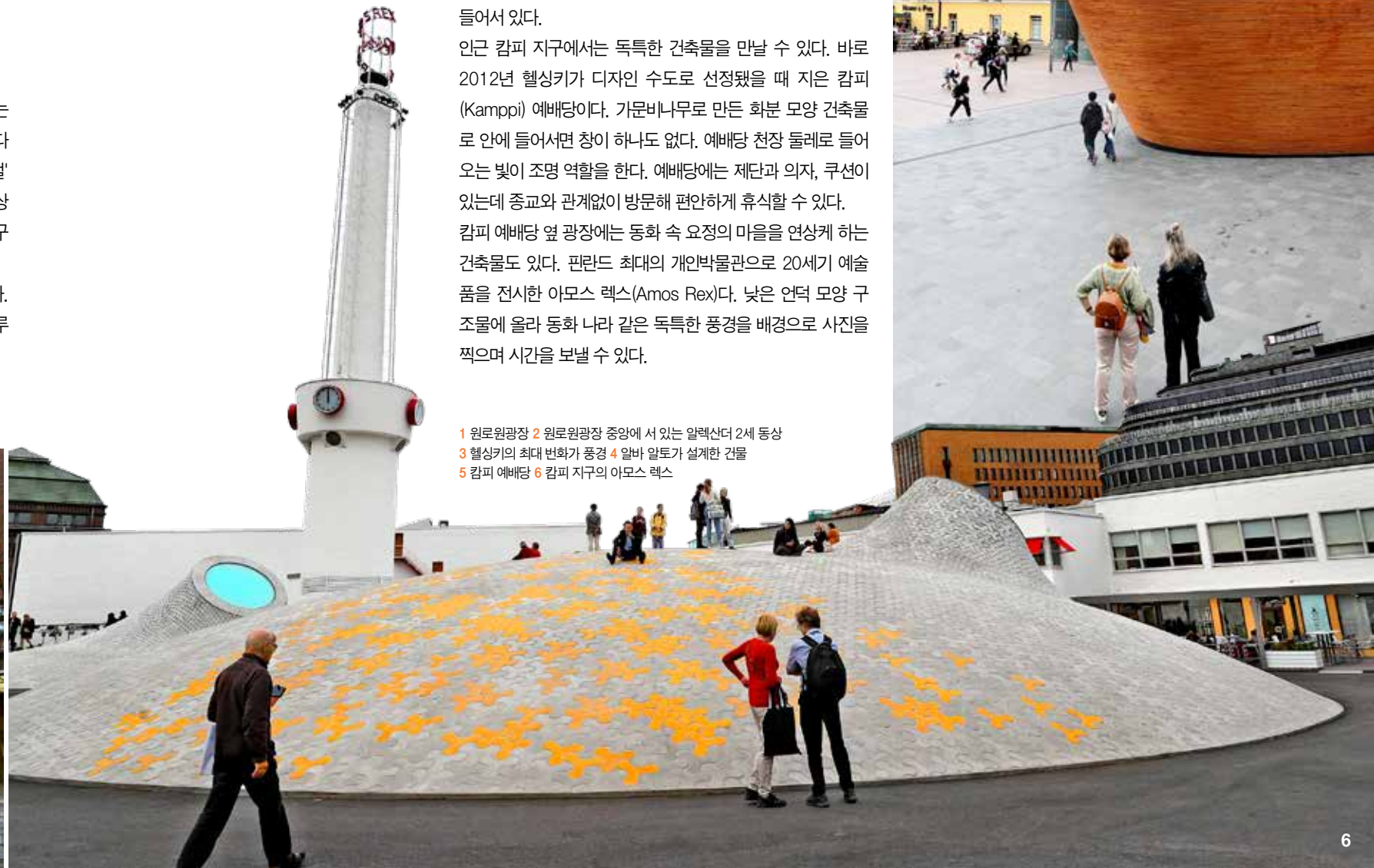
눈길 끄는 이색 건축물들

원로원광장 동쪽은 헬싱키의 최대 변화가다. 가방, 신발, 의류, 시계, 패션 잡화 등을 파는 상점과 식당, 카페가 트램이 오가는 도로 양옆으로 즐비하게 들어서 있다. 거리 음악가들의 흥겨운 연주도 들려온다. 도로 끝자락에는 세계적인 핀란드 건축가이자 디자이너인 알바 알토(Alvar Aalto, 1898~1976)가 1969년 설계한 6층 건물이 들어서 있다. 전면이 커다란 유리창으로 뒤덮인 건물은 세월이 꽤 흘렀어도 무척 세련돼 보인다. 건물 1~2층에는 아카데미아 서점이 입점해 있는데 2층에는 일본 영화 '카모메식당'(2007)에서 사치에가 미도리를 처음 만난 장면이 촬영된 '알토 카페'가

들어서 있다.

인근 캄피 지구에서는 독특한 건축물을 만날 수 있다. 바로 2012년 헬싱키가 디자인 수도로 선정됐을 때 지은 캄피(Kamppi) 예배당이다. 가문비나무로 만든 화분 모양 건축물로 안에 들어서면 창이 하나도 없다. 예배당 천장 둘레로 들어오는 빛이 조명 역할을 한다. 예배당에는 제단과 의자, 쿠션이 있는데 종교와 관계없이 방문해 편안하게 휴식할 수 있다. 캄피 예배당 옆 광장에는 동화 속 요정의 마을을 연상케 하는 건축물도 있다. 핀란드 최대의 개인박물관으로 20세기 예술품을 전시한 아모스 렉스(Amos Rex)다. 낮은 언덕 모양 구조물에 올라 동화 나라 같은 독특한 풍경을 배경으로 사진을 찍으며 시간을 보낼 수 있다.

1 원로원광장 2 원로원광장 중앙에 서 있는 알렉산더 2세 동상
3 헬싱키의 최대 변화가 풍경 4 알바 알토가 설계한 건물
5 캄피 예배당 6 캄피 지구의 아모스 렉스





1. 테우라스타모의 야시장 풍경
2, 3. 테우라스타모의 양조장과 레스토랑



도축장에서 최고 핫플레이스로

헬싱키 시민의 여유로운 생활을 체험하고 싶다면 도심 북쪽에 있는 테우라스타모(Teurastamo·도축장)를 찾으면 된다. 실제 1933년부터 1990년대까지 도축장으로 사용됐던 건물과 부지는 지난 2012년 여가를 위한 공간으로 탈바꿈하며 헬싱키 최고의 핫플레이스가 됐다.

붉은 벽돌 건물에는 좋은 품질의 양주를 생산하는 양조장, 파스타 공장, 로스팅 카페, 레스토랑 등이 들어서 있다. 마당의 잔디밭이나 그늘막에 누워 일광욕을 즐길 수도 있다. 인근에는 원래 도살장 인부들이 사용하던 입대가 가능한 사우나도 있다.

이곳에서는 음식, 카메라, 장신구, 옷 등을 팔고 예술공연을 하는 야시장 이 열린다. 농민시장, 도시원에, 버스킹, 푸드 트럭, 조랑말 타기, 패션쇼 등 흥미로운 이벤트도 연중 다양하게 펼쳐진다. 헬싱키 시민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감상하며 그들의 삶을 조금이나마 맛볼 수 있다.



4 알라스 바다 수영장
5 항구 인근의 스카이힐 헬싱키
6 마켓광장



활기와 여유 넘치는 바닷가

헬싱키는 항구도시다. 도심 남동쪽 마켓광장(Market Square)에 가면 실아라인(Silja Line) 같은 거대한 유람선이 정박해 있고 조그만 배들이 항구를 드나드는 광경을 감상할 수 있다. 마켓광장에서는 매일 상인과 시민, 관광객이 뒤섞여 북적이는 시장이 열린다. 장신구, 옷, 가방 등 판판 드 색채가 가득한 상품을 사고, 포장마차 식당에 앉아 맛갈스러운 음식으로 배를 채울 수도 있다.

마켓광장 옆에는 2016년 문을 연 알라스 바다 수영장(Allas Sea Pool)이 있다. 탁 트인 바다와 항구, 마켓광장의 풍경을 감상하며 수영과 일광욕을 즐길 수 있는 곳이다. 방문객들은 사람이 별로 없어 한결 여유로운 풀과 데크에서 시간을 보낸다. 풀은 세 곳이 있는데 발트해의 바닷물을 끌어들여 사용한다. 두 곳은 물을 27도 이상으로 데워 놀기 좋지만 한 곳은 바닷물을 정수해 그대로 사용하기 때문에 얼음장처럼 차갑다. 차가운 풀은 수영장 내 사우나에서 몸을 땀한 후 이용하는 것이 좋다. ⑦



핀란드는 국토의 75%가 숲으로 덮여 있고 호수가 18만여 개나 있는 '숲과 호수'의 나라다. 산타클로스와 무민의 고향이자, 북유럽을 대표하는 브랜드 마리메꼬, 이따라, 이바나 헬싱키의 본고장이기도 하다. 인구는 550여만 명이지만 국토 면적은 우리나라(남한)의 3배를 넘는다.



항공편

핀에어가 주 7회 직항 운항한다. 오전 10시 20분 인천에서 출발해 헬싱키에는 오후 1시 55분 도착한다. 복항편은 오후 5시 30분 출발해 아침 8시 20분에 돌아온다. 운항 시간은 약 9시간.

스톱오버 핀란드

핀란드관광청과 핀에어가 운영하는 환승객 프로그램이다. 스톱오버 패키지는 5시간부터 5일 일정까지 다양하게 마련돼 있다. 헬싱키 등 핀란드 주요 도시 방문, 다도해 투어, 난탈리(Naantali)의 무민월드 방문, 라플란드 투어 등을 선택해 이용할 수 있다. 에스토니아 탈린, 스웨덴 스톡홀름 등 주변 국가를 방문하는 일정도 있다. 일정에 따라 버스, 기차, 페리 등 교통과 숙박, 식음료가 패키지 비용에 포함되기도 한다. 관련 내용은 스톱오버 패키지 제휴사 웹사이트(www.finlandtours.fi/)에서 확인할 수 있다. 스톱오버 패키지는 핀에어 승객이 헬싱키 경유 노선 항공권을 살 때 함께 예약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핀에어 웹사이트의 스톱오버 페이지(www.finnair.com/kr/ko/stopove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기후

북위 60~70도 사이에 위치해 겨울이 6개월 이상으로 매우 길고 봄과 가을이 짧다. 헬싱키의 연평균 기온은 5.6도이지만 한겨울에는 영하 30도, 한여름에는 섭씨 30도에 육박하기도 한다. 여름에는 백야, 겨울에는 극야가 나타난다. 헬싱키의 경우 겨울에 해가 오전 11시에 떠서 오후 3시에 진다. 여름 기온은 우리나라 봄·가을과 비슷하지만 일교차가 커서 가벼운 외투와 우산을 챙기도록 한다. 10월부터 겨울이 시작되므로 따뜻한 니트류와 두꺼운 외투를 준비해야 한다.

화폐·시차·전압

유로를 사용한다. 시차는 한국보다 6시간 늦다. 전압은 230V로 한국산 전자제품을 그대로 쓸 수 있다.



가볼 만한 곳



↑ 탐페레 디자인숍
탐페레 시내 곳곳에 청년들이 운영하는 부티크숍이 자리하고 있다. 화려한 옷과 가방, 장신구를 선보이는 우하나 디자인(Uhana Design), 가방, 지갑, 신발 등 가족제품을 생산하는 피카 컬렉션(Phika Collection), 가볍고 튼튼한 수제 목재 안경테를 제작하는 크라크라(Kraa Kraa) 등에 가면 특별한 제품을 만날 수 있다.



↑ 플레브나 브뤼어리(Plevna Brewery) 펍 앤드 레스토랑
탐페레의 옛 핀레이스 공장유지에 있는 수제맥주 펍. 대를 이어 맛좋은 수제맥주를 생산하고 있는 곳으로 다양한 대회에서 수상했다. 달콤한 것부터 쓴맛까지 15종의 수제맥주를 즐길 수 있다.



↑ 헬싱키 디자인숍
헬싱키는 스칸디나비아 스타일 디자인 제품을 판매하는 매장이 많다. 한국에도 진출한 콘센트 스토어인 트레(TRE)에서는 가구, 옷, 업서 등 다양한 패션·디자인 제품을 만날 수 있다. 매장에서는 신선한 핀란드 재료로 만든 건강식도 즐길 수 있다. 알바 알토가 디자인한 가구로 유명한 아르텍(Arttek), 그릇과 유리공예 제품을 판매하는 이따라(Iittala), 세계적인 디자이너 파올라 수호넨이 디자인한 옷과 액세서리가 있는 이바나 헬싱키(Ivana Helsinki), 독특한 디자인의 신발을 볼 수 있는 민나 빠리카(Minna Parikka)를 찾아보면 좋겠다.

헬싱키 페스티벌



핀란드 최대 예술 축제로 매년 8월 말에서 9월 초까지 열린다. 음악, 무용, 연극, 영화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헬싱키의 주요 광장과 거리, 콘서트홀, 교회에서 진행된다. 메인이벤트는 원로원광장에서 펼쳐지는 예술의 밤(Night of the Arts) 행사와 축제 마지막 주말에 펼쳐지는 페레이드다. 지난 8월 23일 진행된 올해 예술의 밤 행사에서는 40명이 크레인에 매달려 다양한 퍼포먼스를 선보였다. 거리 곳곳에서는 거리공연과 연주, 체험행사가 밤늦게까지 이어졌다.

목을 만한 호텔



↑ 라플란드 호텔 탐페레
탐페레 기차역에서 걸어서 5분 거리에 있다. 쇼핑가, 무민박물관과 가까운 관광객이 이용하기 편리하다. 호텔 지하에 작은 사우나 시설을 갖추고 있다. 아침 메뉴에 핀란드 전통 순대와 빵이 포함돼 있다.



↑ 헬싱키 소코스 호텔 프레지덴티
파올라 수호넨 이바나 헬싱키 대표가 지난 6년간 인테리어한 호텔이다. 수호넨 대표는 "Midsummer(한여름), Winter Storm(겨울 폭풍), Fairytale Forest(동화 속 숲), Sisu(배짱), Tranquility(고요함) 등 총마다 핀란드의 감성을 담은 독특한 느낌으로 인테리어를 했다"고 밝혔다. 호텔은 피트니스센터, 사우나, 실내 수영장을 갖추고 있다. 캠프 지구에 있어 주요 명소를 방문하기에도 좋다. 헬싱키 기차역에서 도보 10분 거리에 있다.